

일주문

2012 모바일콘텐츠공모전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4월 26일 포교연구소에서 2012 모바일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갖는다.

조계사 한방의료원 개원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100주년 기념관 2층 제2법당에서 한방의료원을 개원한다.

제10회 선다회 다맥전수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5월 4일 쌍계사에서 제10회 한국선다회 다맥전수대법회를 개최한다.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4월 25일 오후 2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대학 평생교육원 개원
대구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18일 대구 한국불교대학에 '참좋은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취임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5월 1일 코모도호텔에서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경기도, 공무원 멘토로
前 조계종문화국장 묘정 스님은 4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소방 및 일반 공무원 자신감 회복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 멘토로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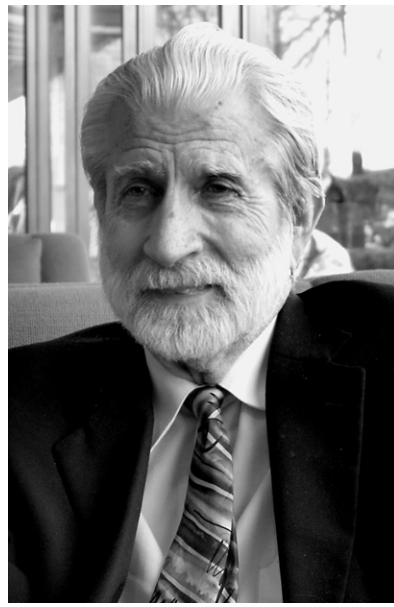
대구서 하루헌 전시 개최
선진 (사)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스님은 하루헌전을 4월 29일까지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위촉
서병열 일방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은 5월 4일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장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 표창 수여
나유인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4월 14일 전라북도경찰청 불교회 연합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 삶의 과제”

랭카스터 UC버클리대 교수



“먼 옛날 <고려대장경>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고려대장경>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일입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자문활동으로 4월 17일 내한한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79)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대장경과 같은 새 시대에 맞는 전법매개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랭카스터 교수는 50여 년째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가 발행한 대장경 목록은 대장경이 가진 가치와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랭카스터 교수가 작업한 고려대장경 전산화 프로그램은 12월 버클리대에서 시범 가동 예정 중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에서 100여 대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해가며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다. 대만에서 제작한 CBETA와 일본 동경대의 SAT보다 다양한 경전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랭카스터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고려대장경을 이 시대에 알리는 새로운 수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랭카스터 교수는 “최초 기획 당시 인터넷의 파급력을 예측하지 못해 CD롬으로 기획된 점이 아쉽다. 디지털화된 대장경을 비주얼적인 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랭카스터 교수는 불교가 세계화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맞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며 “오즘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텔레야 될 수 없다. 불교계는 미디어 발달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고려대장경 세계화에 나선 인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일부를 한지에 찍어 세계 각국 대학으로 보냈는데 버클리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던 그는 이 인쇄본을 접하고 대장경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

랭카스터 교수는 “중국 상하이에서 팔만대장경판 목록을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며 1993년 한국에서 후속 작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전산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금 문제가 컸다. 삼성사의 지원이 있었지만 후반 작업은 개인후원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랭카스터 교수의 대장경 세계화에 대한 열의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곧 후원이 달도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대장경이 없었다면 당시 어떤 불경도 현재 이렇게 전해지지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장경을 오늘날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해 나가는 것이 남은 내 인생의 과제”라며 밝게 웃었다.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교수는 1954년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불교학 석사, 1968년 위스콘신대학에서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두 학위 모두 미국 내 첫 불교학 학위다.

1970년 후반에는 미국 종교학회(AAR)에 한국종교분과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 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유대신 교수와 함께 영문판 <불교의 전래(1989)>, <통

일기의 불교(1989)>, <고려불교-국가종교(1996)> <조선불교-역암과 변형(1996)> 등을 편찬했다.

또 한국의 시(詩)를 좋아한다는 랭카스터 교수는 1999년 백담사에서 개최된 ‘제1회 만해학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만해시와 불교사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 2007년에는 제11회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il.com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30개 대학에 1500만원 지원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교수불자들이 나선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 이하 교불련)는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금 1500만원을 활동지원금으로 4월 26일 전달했다.

기금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보시로 조성됐다. 교불련은 이 돈을 30개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에게 전달했다. 교불련 최용준 회장은 “교수불자들은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늘 화두로 삼아 정진해 왔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2009년부터 정진한 결과 30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는 성과로 얻게 됐다”고 말했다.

교불련은 이번 첫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2012년부터는 범학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해운대 룸비니포교원 수록고훈 천도방생 법회 봉행

해운대 룸비니포교원(조실 도문)은 4월 17일 해운대포교원과 해운대백사장에서 수록고훈 천도방생 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조실 도문 스님은 200여 사부대중에게 ‘무상계’와 <금강삼매경>의 핵심교리 등을 설명했다. 이날 봉행된 수록고훈 천도방생법회는 1912년 용성진종 조사가 한강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로 그 수법제자인 동헌원규 조사가 1941년부터 이어 받아 시행해 왔다. 1961년부터는 용성 조사의 법손인 도문 스님이 계대를 이어 한탄강 임진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부산의 송도·광안리를 거쳐 해운대 앞바다까지 진행해 왔다. 조동섭 기자

“여성불자 역량 확대에 불교미래 있어”

GEP프로그램 진행하는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



“여성이 나서서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주체가 되어 합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가 5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12회에 걸쳐 GEP(Global Empowerment Projec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GEP는 불교계의 여성인재,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차례 2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설해 각 분야의 교수진들에 의해 12주 동안 운영된다. 이 GEP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불교여성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은수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있다.

조은수 소장은 “젊은 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고민 끝에 GEP프로그램을 통해 개별적 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제2차 GEP에서는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 여학생들이 모여 불교, 자기 계발, 리더십, 여성에 관한 영어 기사를 읽고 토론하게 된다.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2013년 1월 5~12일까지 인도 ‘바이살리’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해 통역과 번역봉사자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조 소장은 “지난해 학생들이 태국 사카디터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통역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소수자이며 한국 여성 불자들은

은 다수이면서도 소수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해 불교계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은?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은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도미해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서울대 철학에 참가해 통역과 번역봉사자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대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초대 소장,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 출판소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11년 1월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내 불교여성연구소를 창립해 소장직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50돌’ 동국대 문학콩쿠르 열린다

5월 4일까지 작품 접수
26일 본선서 수상자 결정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접수가 시작됐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동국대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는 한국문학의 맥을 잇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개최돼 왔다. 작품접수는 5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되며, 응모 부문은 △시, 시조 △소설 △수필이다. 수상작들은 예선 심사사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본선

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동국대 문학콩쿠르 장원, 차상 수상자는 동국대 입학 시 ‘문학인 육성 장학기금’을 수혜 받게 되며, 장원은 2년간 수업료 전액 감면, 차상은 1년간 수업료 30%가 감면된다.

한편,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거쳐 등단한 작가로는 소설가 윤우명, 최명희, 홍현희, 이규영, 최시한, 채희문 씨와 시인 하일, 송유하, 문정희, 박정만, 김연신, 김택근, 최춘희, 윤성근, 안도현, 오선홍, 장석남, 박형준 씨 등이 있다. 신종일 기자

2012년 4월 한국불교중흥의 대원(大願)을 품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이 출범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주축으로 하여 뜻있는 군소불교종단을 통합, 연대하여 저마다의 포교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급격하는 사회변혁의 물결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고자하는 시대적 열망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선교종의 주축이되는 일불선교종은 창종주(創宗主)이신 초대세계법왕 일불서경보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초대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현5세 종정법담 정각 대종사님께 동참하시어 1988년 9월 16일 창종하고 1991년 9월 27일 그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라 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불종자님의 열반이후 재단법인과 총무원과의 공조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실하여 종단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일불종자님의 유지를 받들고 종단위상을 드높이는 중무행정에도 많은 난맥상이 발생하여 종단이 날로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고 종단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과 별도로 새롭게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은 일불종자님의 유지를 받들고 수호하는 유지재단으로만 존속되며, 인적자원이 총무원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을 중심으로 중무행정 전반과 종단 대내의 업무를 전담해 나갈 것을 2012년 4월 16일 오후 2시 본종 총

무원 4층 회의실에서 중무협의회를 거쳐 제 43차 임시 중앙총회회의에 상정하여 중앙총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일불 종도만을 위한 종단이 아니라 한국불교 군소종단의 화합과 교육, 승려의 자질향상을 통한 위상강화를 위해 항상 문호를 개방하여 공생공사의 대도(大道)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수 백 개의 군소종단이 난립하여 명멸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 수행이 부재하여 한국불교 전체의 자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승려의 위상역시 심각한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에서는 교육과 소통을 원하는 어떠한 종단 어떤 승려에게라도 공평한 교육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소종단 통합강원”을 설립할 것이며, 군소종단 승려의 위상강화를 위해 “군소종단합동다비장”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강원에서 교육받은 모든 승려에 대해서는 통합종단과 연대로 맺어진 모든종단에서 그 교육활동과 단일계단으로 공인하도록하여 군소종단 역시 출가 사문에 대한 존장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승풍을 진작해 나갈 것이며 선원중심으로 선풍을 진작할 것이며 수행과 국제포교의 중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종단 대표간 긴밀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한 목소리를 냈으며

서 한국불교의 한 축으로서 통합종단의 역할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선교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종단,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와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일체의 사됨도 배제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와 불심깊은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기 2556(2012)년 4월 16일 한국불교 중흥의 새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합장
중앙총회 총회위원장 삼주 합장
총무원 임직원 및 중앙총회 총회의원 일동 합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총무원 사무실
총무원 대표전화 02)998-8161

